

#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의 의미와 의의: 거버넌스 사회의 실현과 역사연구의 새 지평을 위하여\*

노명환\*\*

## 차 례

- I. 머리말
- II.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의 등장 배경
- III. 붐스의 도큐멘테이션 플랜 이론의 영향과 포스트모더니즘 및 전자기록시대 전개라는 시대사 속에서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등장
- IV. 구성주의에 의거한 증거, 정보, 지식, 문화, 기억, 정체성, 공동체의 구성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 V.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방법론 확충을 위한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 이울곡의 이기일원론 성리학
- VI. 맺음말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논문은 <<Role of Archival Management for Social Governance and Paradigm Shift in Archival Science>>라는 주제의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및 기록학연구센터 주관 국제학술회의 (2012. 05. 19)에서 발표한 발제문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외대 사학과 / 대학원 정보·기록관학과 교수

## I. 머리말

필자는 본고에서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가 무엇이며, 이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기록학의 이론들이 어떻게 재정립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어떻게 새롭게 규정되는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의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대단히 좋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패러다임 변화는 기록화 전략 (documentation strategy)과 이것을 수행하는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주제의 논의로 첨예화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기록화 (documentation)는 아키비스트가 증거, 정보, 지식, 기억, 문화,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호구성 하는 행위이다. 기록화 전략은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록화의 방법론과 추진과정을 위한 방안을 말한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주의 이론을 도입하여 기존의 기록화 전략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구성주의 (constructivism)는 정체성이 구조와 행위자 사이에서 상호 구성된다는 관점의 이론으로서 d1 상호구성 과정을 통해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새롭게 구성된다고 본다. 구성주의는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본질주의 (Essentialism)에 반대하면서 사회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 그리고 공동체 정체성과 이해관계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한다.<sup>1)</sup> 공동체의 정체성은 패러다임 변화 이후의 기록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었다. 구성주의자들은 정체성을 “주체와 구조가 상호 구성한다는 존재론에 입각하여” “시간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관계”로 본다.<sup>2)</sup> 이러한

1) David D. Latin, *Identity in Form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pp. 10-24; Menno Spiering, “National Identity and European Unity”, in Michael Wintle (ed.), *Culture and Identity in Europe. Perceptions of divergence and unity in past and present*, Oxford 1996, p. 98-132.

2) 오디 클로우츠/ 시실리아 린치 (손혁상/이주연 옮김),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관계 연구 전략』,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p. 107. (Audie Klotz/ Cecelie Lynch,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측면에서 필자는 본문에서 설명할 기록화 계획(documentation plan)과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 이론들이 구성주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생각한다. 그 의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도 구성주의 이론에서 많은 부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 필자는 기록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맥락에서 그 상징적 정점으로 기록화 전략이 갖는 의의를 구성주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 미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아카이브즈', '커뮤니티 아카이브즈', 그리고 특히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바로 기록화 전략과 깊은 연관관계에 있으며 위에서 말한 구성주의 입장에서 입론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를 위해 필자는 구성주의 이론 중에서도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초가 된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사회구성론' 이론 체계의 핵심<sup>3)</sup>을 적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패러다임 변화의 정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기록화 전략이 대두되는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그 내용을 여러 사상적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록화 전략의 미래 방향을 구성주의 이론과의 연계 속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필자가 설명하는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는 기록과 아키비스트 그리고 기록관리와 아키비스트 사이에 상호구성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측면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적인 설명을 하기위해 필자는 또한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 그리고 이울곡의 이기일원론 성리학 이론을 도입할 것이다.

현재 기록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 되고 그 실현 시도가 활발히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쿡(Terry Cook)과 사무엘스(Helen W. Samuels)가 공동 편집한 『과거의 통제. 사회와 기관의 기록화』에 실린 수십 편의 논문들은 엄청난 열정과 다양하고 심대한 연구 성과들을 제시하고 있다.<sup>4)</sup> 기록화 전략을

3) Anthony Giddens,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4, (황명주, 정희태, 권진현 역, 『사회구성론』, 자작아카데미 1998..

이해하기 위해서 패러다임 변화의 한 분수령이 되는 붐스(Hans Booms)의 기록화 계획(documentation plan)을 본문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룰 것이다.

기록화 전략 논의는 필자가 보기에 기억, 정체성, 공동체의 개념에 기초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역사연구 방향과 방법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록화 전략은 문서중심의 사료편찬 기획으로 이해될 수 있겠는데, 소위 ‘포스트모던 시대’에 이것은 민속, 구술 등 다양한 사료 형태의 편찬 기획을 의미한다 하겠다. 기록화 전략은 또한 지식, 정보의 개념과 함께 현대 거버넌스 사회 실현을 위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본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록화 전략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 역사 방법론이 될 수 있으며 현대 거버넌스 사회 실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아카이브스와 아키비스트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역사연구의 방향과 방법론을 위해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거버넌스 사회 실현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또한 아키비스트와 역사연구자의 상호 효율적인 협력관계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기록화 전략’ 혹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한국어 표현인 ‘기록화 전략’외에 외래어인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라는 용어가 이미 워낙 한국의 기록학 및 기록관리 실무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화 계획’과 ‘도큐멘테이션 계획’, 혹은 ‘도큐멘테이션 플랜’이라는 용어도 혼용해서 사용한다.

---

4) Terry Cook/ Helen W. Samuels (ed.), *Controlling the Past: Documenting Society and Institutions : Essays in Honor of Helen Willa Samuel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11; 기록화 전략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로는 김명훈, 『전자기록 평가론』, 도서출판 새 진리탐구 2009; 오명진, 「동시대 역사적 사건의 기록화 전략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설문원, 「디지털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1; 이승억,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2 (2006).

## II.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의 등장 배경

### 1. 패러다임 변화 이전의 기록관리 특징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변화 이전의 특징이 무엇이었고 이후에 어떠한 특징의 변화가 들어섰는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sup>5)</sup> 또한 그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이 그 패러다임 변화의 원동력이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패러다임 변화의 원동력과 도큐멘테이션 전략과의 상호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아키비스트가 커뮤니티 정체성 구성에 관여하거나 기록화 전략을 구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젠킨슨(Hilary Jenkinson)에 따르면 아키비스트는 이관된 기록을 원질서 그대로 유지·보존하여 증거와 문화유산으로 후세를 위해 전수하는 데만 전념해야 했다. 아키비스트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하여 기존의 기록을 없애거나 혹은 이관 받은 기록들의 원질서를 변화시키는 행위는 추호도 용납될 수 없었다. 아키비스트는 사회적 행위의 증거인 기록물을 이관 받아 그 원질서를 지키면서 보존해야 했다. 이는 달리 말해 아키비스트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했다.<sup>6)</sup> 1898년에 네덜란드 아키비스트들이 제작한 기록관리 매뉴얼을<sup>7)</sup> 수용하여 그는 1922년 새롭게 기록관리 매뉴얼을 정립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1898년의 네덜란드 매뉴얼에는 1941년 프랑스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풍조 중의 원칙과 1881년 프로이센에서 정립된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이 녹아들어 가 있다.<sup>8)</sup> 네덜란드 매뉴얼은 특별히 현장에서 아키비스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 패러다임이란 용어는 과학사가 토마스 쿤이 사용한 개념으로 한 사회의 시대적 가치체계를 담은 그 사회의 작동 기제로서의 체계를 말한다.

6) Hilary Jenkinson, *A Manual of Archival Administration*, (London: P. Land, Humphries, 1937), (1922년에 첫 출간), p. 20-21.

7) Samuel Muller, J. A. Feith, R. Fruin, *Manual for the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Archives* (New York: W. Wilson, 1968)

록 제작된 실무 지침서였다. 이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을 기록관리 현장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행위의 증거인 기록물들을 총체적 맥락을 살리면서 보존하는 것을 의미했다.<sup>9)</sup>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켈렌슨이 말하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신성한 증거의 수호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1950년대를 정점으로 미국의 아키비스트인 셸른버그(T. Shellenberg)가 넘쳐나는 기록의 양에 주목하면서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한 평가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록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이론을 개발하고 그 이론에 따라 아키비스트가 기록의 중요도를 평가해서 보존과 폐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키비스트의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기록의 양을 조정하고 활용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유의미한 기록 유산을 형성시키고자 하였다.<sup>10)</sup> 이때 그의 입장은 독일의 브레네케(Adolf Brenneke)와 포스너(Ernst Posner)로 이어지는 자유출처주의 원칙을 일면 수용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유 출처주의란 출처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기록을 정리·보존하되 아키비스트가 능동적으로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여 출처주의에 의거한 원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11)</sup> 즉, 이는 원질서 원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음을 예시했다.<sup>12)</sup> 독일에서 포스너는 브레네케 밑에서 아키비스트 역할을 수행했고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그는 독일

8) Ernst Posner, "Max Lehman and the Genesis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n: *Indian Archives* (Jan.-June 1950), p. 40; Terry Cook,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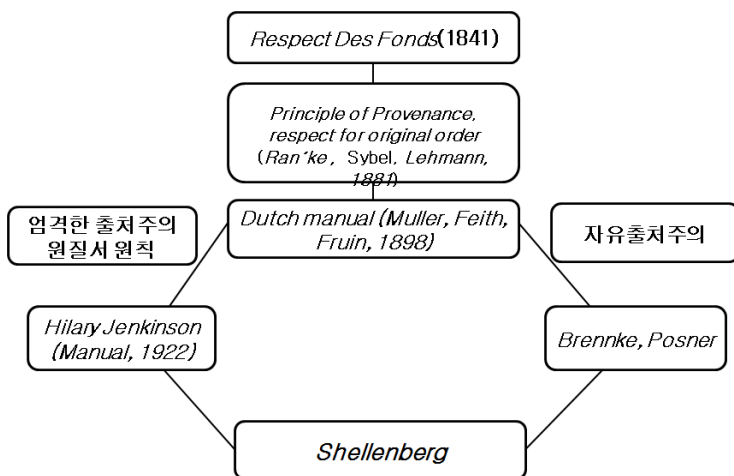
9) 노명환,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제 14호 (2006. 10), p. 362-376.

10) Theodore R. Schellenberg, *Management of Arch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11) Adolf Brenneke, *Archivkunde: Ein Beitrag zur Theorie und Geschichte des Europäischen Archivwesens*, bearb. v. Wolfgang Leesch (Leipzig: 1953).

12) Johanna Weiser, *Geschichte der Preußischen Archivverwaltung und ihrer Leiter. Von den Anfängen unter Staatskanzler von Hardenberg bis zur Auflösung im Jahre 1945*, Köln/Weimar/Wien 2000, p. 123.

에 나치체제가 들어서자 유대 혈통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독일의 자유출처주의 원칙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국립기록보존소와 아메리칸 대학의 기록학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셸른버그와 조우했다.<sup>13)</sup> 이것이 독일의 자유출처주의가 셸른버그에게 전해진 경로였다. 물론 셸른버그는 철저히 켈렌슨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포스너로부터 자유출처주의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sup>14)</sup>



그런데 자유출처주의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처주의 원칙에 충실하되 일정 부분 평가에서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셸른버그는 요즈음 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해당할 만큼 기록 관리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창한 것은 아니었다. 아키비스트의 주관성을

13) Wolfgang A. Mommsen, "Ernst Posner, Mittler zwischen deutschem und amerikanischem Archivwesen", *Der Archivar*, 20. Jahrgang (Juli 1967) Heft 3, p. 218.

14) 이 도표는 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임.

인정하는 가운데 그의 기획에 의한 도큐멘테이션과 같은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역할은 그에겐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 2.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의 전령으로서 기록화 계획의 등장

필자는 서양의 현대 기록학사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붐스(Hans Booms)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는 기록화 계획(documentation plan) 이론을 통하여 차후의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 이론의 기본 틀을 다졌다. 붐스는 1970년대 초부터 여러 학술회의에서 아키비스트가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 작업을 수행하여 사회의 기록문화유산을 능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논점은 “사회와 기록유산의 형성: 아카이브 자료의 평가문제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sup>15)</sup> 라는 논문을 통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아키비스트가 기획에 의거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도큐멘테이션 계획(documentation plan)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록 관리를 수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아키비스트가 기획을 하여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시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에 맞추어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기록화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은 어떤 기록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대의 가치를 담고 있는지를 논의하여 기록화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붐스가 시대의 가치를 기록화 하는 것이 아키비스트의 사명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시대의 가치를 읽고 이를 기록화 하는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아키비스트가 객관적인 진리의 수호인’이라는 켄킨슨의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모든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주관성과 그 주관성의 원천으로서 자신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시킨다고 보았다.

---

15) *Archivaria* 24 (1987년).



그는 모든 인간은 그 주관성의 많은 부분을 그 자신의 사회 속에서 획득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social animal)'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이해의 기본전제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면 인간인 아키비스트 또한 사회적 동물이라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그의 기록학 정립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그는 사회적 동물인 아키비스트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의 가치관을 획득하며 그의 모든 행위 속에서 이 가치관이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아키비스트가 가치중립적으로 객관적인 기록 관리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켄킨슨의 입장이 허구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마치 19세기 중반 역사가인 드로이젠(Johann Gustav Droysen)이 랑케(Leopold von Ranke)가 “본래 있었던 그대로(Wie es eigentlich gesesen)”를 재구성하는 역사학의 가치를 주장했을 때 이를 환관(宦官 - 거세되어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의 역사라고 꼬집었던 것과 비견된다.<sup>16)</sup> 붐스의 켄킨슨 전통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사회적 동물로서 갖는 아키비스트의 주관성에 대한 사려 깊은 인식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과 수용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키비스트들 각자의 주관성은 상호 소통되어야 했다. 다시 말해 붐스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서 아키비스트가 사회를 위해 기록관리를 합목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키비스트의 주관성이 인정되고 이 주관성들이 사회 내에서 상호 소통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아키비스트가 기획을 하고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대가치를 전수할 수 있는 기록유산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위원회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들의 주관성을 소통시키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위원회를 본고의 5장에서 설명할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개념을 빌려 정의한다면 '간주관성<sup>17)</sup>의 소통 (communication of intersubjectivity)'이 이루어지는 '공론장

---

16) Johann Gustav Droysen, *Historik. Vorlesungen über Enzyklopädie und Methodologie der Geschichte*, ed. Rudolf Hübner, 5th ed. (München 1967), p. 287.

(Öffentlichkeit, public sphere)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18)</sup> 뵘스는 이러한 '간주관성의 소통'을 통해서 기록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유산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다.<sup>19)</sup> 필자는 뵘스의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본고의 다음 장들에서 기든스의 구성주의 이론,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그의 도큐멘테이션 계획과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를 개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뵘스가 제안한 도큐멘테이션 계획은 본래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시대에 노정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뵘스 이론의 본질적인 장점은 무엇이고 근본적인 한계점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논구하고 본고의 주 논제인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본질과 미래 지향점을 천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뵘스의 이론이 후대의 역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조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의 시대에서 그의 이론은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현실에 적용되기 어려운 추상적인 측면을 내포한다는 것이 그 비판의 첫째 이유였다. 그가 이야기하는 도큐멘테이션 플랜은 대단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말하는 각계각층의 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추진력과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다. 단지 동독에서 그의 이론이 적극적으로 채용되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일방적인 이데올로기 창

17) 간주관성을 상호주관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학계에 이미 간주관성의 용어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필자도 이에 따른다. 상호주관성으로 번역하는 경우는 김창호, 『하버마스의 체계와 생활세계』, 김재현 외 저,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 주제와 쟁점들』(나남출판, 1996), pp. 177-200 에서도 볼 수 있다.

18) Jürgen Habermas,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Hermann Luchter hand Verlag 1962, 5. Auflage (1971);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 *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1;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I,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1.

19)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뵘스의 입장을 후에 서술할 하버마스의 공론장 그리고 의사소통행위 이론에 비추어 조명해 볼 필요를 느낀다.

출 시스템에 일조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이론은 실무에서 실현되기 어렵고, 비현실적인 것이면서 또한 독재 권력의 이데올로기 수단으로서의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치 독재체제를 겪었던 독일인들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이는 매우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었다. 그러면 그의 이론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행상의 문제점이었는가? 또는 혹 그의 이론이 덜 다듬어지고 수용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결과는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 장에서 보듯이 붐스의 이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키비스트들이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들이 간주관성의 소통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인지하고 훈련을 통해 이에 숙달되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미래 방향을 위해 그 주관성의 상호소통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구성주의 이론의 가치를 강조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작업이 쿡의 중대한 문제 문제의식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쿡의 거시평가 (기능평가)와 영구기록물을 위한 위원회 제도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를 보다 전진적으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의 위원회는 이러한 간주관성의 소통의 훈련과 숙달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해와 훈련을 통해 붐스의 도큐멘테이션 플랜 이론은 독재체제의 이데올로기 수단이 아니라 참여민주주의 거버넌스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 Ⅲ. 붐스의 도큐멘테이션 플랜 이론의 영향과 포스트모더니즘 및 전자기록시대 전개라는 시대사 속에서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등장

붐스의 기록화 계획 이론은 북미 대륙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을 추진하려는 발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가 하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쿡(Terry Cook)은 그의 거시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영구기록물 선별·보존하는 작업을 위해 거버넌스 사회를 반영하는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는데<sup>20)</sup> 붐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sup>21)</sup> 필자가 보기에 붐스 이론의 가치에 주목하고 보다 효율적인 실무 적용을 위해 보완점 개발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천착한 사람이 쿡이다. 쿡 역시도 인간이란 주관성을 투영하면서 실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주관성은 그가 사는 사회·문화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그런가 하면 아카이빙 실무에서 그는 또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획득해 간다고 본다.<sup>22)</sup> 이와 관련해서는 케텔라르(Eric Ketelaar)가 창안한 아키발라이제이션(archivalization) 개념도 큰 의미를 준다. 그는 아키비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투영되는 아카이빙 과정을 아키발라이제이션이라 명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카이빙 과정을 통해 아키비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도 구성된다고 했다.<sup>23)</sup> 이러한 논점들 또한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진행된 도큐멘테이션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은 사무엘스

20) Terry Cook,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documenting governance rather than govern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25, No. 1, 2004; 김명훈, 『전자기록평가론』 pp. 253-264.

21) 이승억, op. cit., pp. 49-51. 쿡은 이 점을 필자와의 개인적 대담에서도 확인해 주었다.

22) 이에 대해서는 Terry Cook,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2012).

23) Eric Ketelaar, "Archivaliz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27 (1999); Eric Ketelaar, "Tacit Narratives: The Meanings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1: 2001, pp. 137-139.

(Helen Willa Samuels)<sup>24)</sup>와 콕스(Richard Cox)<sup>25)</sup>와 같은 선각자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추진되었다. 그들은 아키비스트들이 적극적으로 기록화를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은 아키비스트들이 각 기관과 사회를 기록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가 거버넌스 사회 실현 그리고 기관과 사회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하였다. 그들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해 아키비스트들이 역사연구의 새 지평을 여는데 기여하게 하고자 했다. 사무엘스가 제기했던 ‘누가 과거를 통제하는가?’ 하는 질문은 바로 이 점을 대변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현을 위해 그들은 아키비스트들의 공동작업을 구상했다. 무엇보다도 기록관리 기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을 중시했다. 그들은 그러면서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요구되는 도큐멘테이션 작업을 실현해 갈 것을 상정했다.<sup>26)</sup> 그들은 한 지역을 단위로 한 총체적 기록화 전략의 실현을 기획하기도 하였다.<sup>27)</sup> 이 기록화 전략 또한 아키비스트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이 주관성들이 상호 소통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러한 주관성의 소통에 관해서 확실한 현실적인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

---

24) Helen Willia Samuels, "Who contols the Past", *American Archivist* 49 (Spring 1986).

25) Richard J. Cox, "The Documentation Strategy and Archival appraisal Principles: A different Perspective", *Archivaria* 38 (1994).

26) Helen Willia Samuels, "Who contols the Past", *American Archivist* 49 (Spring 1986), p. 120.

27) Larry J. Hackman and Joan Warnow-Blewett, "The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A Model and a Case Study", *American Archivist* Vol. 50 (Winter 1987). 콕이 기록화 전략을 반대했다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는 그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주관성과 임의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정한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그의 거시평가 방법을 위해 중요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승억, op. cit., pp. 51-52. 그 오해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콕의 "Documentation Strategy", *Archivaria* 34 (Summer 1992) 논문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면밀히 읽을 필요가 있다. 봄스의 이론에 대한 그의 입장에서 보듯 그는 기록화에 대해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그의 관점은 거버넌스 과정을 기록화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필자와의 여러 대화 속에서 그는 구성주의 이론에 의한 사회 거버넌스 기록화 전략의 가치를 크게 강조한다.

다. 그리고 위원회 제도는 효율성이 미약하고 그리고 그 임의성과 자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쉽게 극복할 수가 없었다. 기록관리 기관들 간의 소통과 협업도 용이치 않았다. 그리하여 현재까지의 기록화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 실패의 원인을 기록화 전략 이론의 미흡과 아키비스트들의 적응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등장하였는가'를 심도 있게 성찰해 보면서 그 의의를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성찰을 위해 필자는 특히 구성주의 이론의 도입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과 전자기록 시대의 대두라는 시대사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봄스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패러다임 변화 사항들, 즉 사회적 동물로서의 아키비스트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그 주관성들의 상호 소통에 기반 해서 시대의 가치를 담는 기록화 계획을 추진하는 이러한 작업들은 필자가 보기에 포스트모던 사조와 조우하면서 그리고 전자기록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록화 전략으로 계승·전개될 수 있었다. 즉, 아키비스트의 주관성을 인정하는 문제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이론의 등장이 단순히 기록관리 내부의 사상적·이론적 진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과의 연계 속에서 발전되었던 것이다.<sup>28)</sup>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핵심은 인간 저마다의 주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주관성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인정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사상에 의하면 근대 세계의 발전은 이성 중심의 보편성 원리에 놓여 있었었다. 그리고 이 이성 중심의 보편성 원리를 저마다 인간 모두가 갖게 하는 것이 계몽주의였다.

28) 김기봉의 지음,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2002.; Terry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1 (2001); Terry Cook, "Fashionable Nonsense or Professional Rebirth: Postmodernism and the Practice of Archives", *Archivaria* 51 (Spring 2001). 기록학과 기록관리 실무에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을 도입해야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테리 쿡이다. 그런데 그는 앞에서 말한 대로 봄스의 기록화 계획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사실은 필자에게 위와 같은 생각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포스트모던 사상은 근대의 이성과 계몽주의는 봉건적 사회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과 물질적 풍요 및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또한 인간 개인의 개별성을 무시함으로써 배제와 차별을 야기하고 그 속에서 계몽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이러한 근대성을 비판하면서 탈근대성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인간 개인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개인의 해방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춘다. 포스트모던 관점의 기록관리 이론에서 본다면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은 문서기록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서기록의 경우 그것을 생산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특권층이었다. 그렇다면 원질서 원칙과 출처주의 원칙이 상징하는 문서 기록관리 제도는 특권층의 사회적 리더십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이러한 기록관리 제도를 불평등에 기초한 체제로 보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여기에 서양의 기록학계 내에서도 철저한 반성이 일어나고 기록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록관리의 목적을 증거의 보존으로부터 기억의 구성이라는 관점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기록의 정의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문서만이 기록이 아니라 문서 외에 다양한 유무형의 여러 형태들의 기록들 상정했다. 예를 들어 이들은 구전, 민속, 구술,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기억의 매체들을 기록의 범주에 편입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된 기록들을 보존하는 기관을 '문화적으로 민감한 기록보존소(culturally sensitive archives)'로 명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기릴랜드(Anne Gilliland), 미케미쉬(Sue McKemish), 베스티안(Jannette Bastian), 화이트(Kelvin White)과 같은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사회운동을 펼쳐 나갔다.<sup>29)</sup> 대중문화 및 물질문화가 중요한 기록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아키비스트들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함과

---

29) Jeannette Bastian and Ben Alexander (ed.),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London 2009; Sue McKemish, Anne Gilliland-Swetland and Eric Ketelaar, "Communities of Memory": Plualis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Archives and Manuscripts* 33. 1 (May 2005).

동시에 문화산업의 생산물들을 소비하면서 대중문화를 만들고<sup>30)</sup>와 같은 관점들에 주목하면서 “대중문화는 하층의 혹은 담론 또는 물질 형태의 재원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 진다. 이 재원은 원래 사회구조에 의해 제공되는데, 사회가 이 재원을 그들로부터 빼앗는다.”<sup>31)</sup>와 같은 논점에 의거하여 대중문화와 사회관계를 기록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키비스트들은 문헌으로 표현된 ‘정신문화’의 ‘소수대표성’과 ‘편견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기록관리 대상으로서 물질문화의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물질문화는 구술 자료들의 편견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 증거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미국의 역사 경험에서 보면, 물질문화란 대부분 백인, 상류 또는 중류계급, 남자, 도시, 그리고 개신교 핵심그룹 작가로 이루어진 소수집단이 생산한 문헌기록이다.”<sup>32)</sup> 이들은 문서 중심의 기록관리가 유럽 중심주의와 관계되어 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진정한 탈식민지화는 각 지역의 전통적인 기록과 그 기록의 보존체계를 인정하고 또 새로이 독자적으로 수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가 기구와 같은 거대 조직의 행위 증거에 대한 기록관리와 같은 소위 ‘거대 담론’의 기록관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구성원들 자신의 삶의 기억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체들의 아카이브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아카이브즈는 문서 중심의 기록만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문화적으로 민감한 기록들을 관리하도록 하고자 했다. 이러한 아카이브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기억과 삶을 기록화 해나가는 운영 방식을 취해야 했다. 소위 이들이 근래에 인구에 회자하는 커뮤니티 기록보존소들이다.<sup>33)</sup> 그러면서 이들은

30) John Fiske, *Reading the Popular*, (Boston: Unwin Hyman 1989), pp. 1-2, Richard Cox, op. cit., p. 27 에서 재인용. 오향녕, op. cit., pp. 365-366 참조.

31) John Fiske, *Reading the Popular*, (Boston: Unwin Hyman 1989), pp. 6, Richard Cox, op. cit., p. 27 에서 재인용. 오향녕, op. cit., p. 366 참조.

32) Thomas J. Schlereth (ed.), *Material Culture: A Research Guide*, (Lawrence, 1985), p. 12, Richard Cox, op. cit., p. 28 에서 재인용. 오향녕, op. cit., p. 368 참조.



아카이브즈를 모든 형태의 인간의 기억과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생성하는 기관으로 상정하고 그 기관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소위 말하는 '총체적 아카이브즈 (Total Archives, 혹은 Inclusive Archives)'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다른 한 종류의 표현이요 차원이라고 하겠다.

포스트모던 담론 외에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록이 전자 매체의 형태를 띠게 되는 현상이 또한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아키비스트들은 전자기록 시대에 맥락보존을 확실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맥락보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앞에서 포스트모던 담론의 비판에서 보듯이 원질서 원칙과 출처주의 원칙은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anachronical) 이론들로 취급되어 부정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자기록 시대에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을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두 원칙이 제공해주는 맥락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들은 메타데이터 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 메타데이터들은 사회적 증거로서의 기록을 획득하여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의 설명책임성과 기록에 대한 진본성을 증명해주는 그리고 기록들 간의 맥락을 생성·유지시키는 유효한 방법으로 주목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 발전이 용이한 것이 아니고 기록학이 그 발전에 종속된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학문상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야기했다. 그리하여 연구자들은 이 메타데이터가 출처주의와

---

33) Jeannette Bastian and Ben Alexander (ed.),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London 2009; Sue McKemmish, Anne Gilliland-Swetland and Eric Ketelaar, "Communities of Memory': Plualis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Archives and Manuscripts* 33. 1 (May 2005); Isto Huvila, "Participatory Archive: Towards Decentralized Curation, Radical User Orientation, and Broader Contextualization of Records Management," *Archival Science* 8.1 (2008).

원질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전자기록에 내재하는 자연스러운 질서로서 그 본질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하는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이에 관해서 우리는 기릴랜드(Anne Gilliland)가 특별히 '메타데이터의 고고학'<sup>34)</sup>이라는 주제로 깊은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의 연구방법은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과 같은 지식연구 방법을 연상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포스트모던 사상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는, 즉 아키비스트의 자율성과 주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의미했다. 이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등장할 수 있는 유리한 토양으로 작용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전자기록 시대에 기록이 갖는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자 기록 시대에는 정보로서의 기록의 가치가 크게 부각되었다.<sup>35)</sup> 이리하여 전자기록 시대는 사회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전자기록 시대에는 이관에서 보존 및 활용이 하나의 연속시스템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그래서 생산된 전자기록과 보존된 전자기록 사이에는 물리적 시간의 간격이 없고 그 활용이 새로운 차원에서 추구될 수 있다. 이는 기록콘텐츠라는 문화적 차원을 효율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기도 했다. 전자기록 시대에서는 기록이 생산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사전적으로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전자기록 시대에서는 보존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물리적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학 기술의 개입이 크게 촉진되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증거와 정보로서의 기록 외에 기억의 매개물

34) Anne J. Gilliland, "Reflections on the Value of Metadata Archaeology for Recordkeeping in a Global, Digital World",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32 No. 1 (April 2011).

35) 이와 관해서 우리는 1980년대 중반 Hugh Taylor가 기록관리는 정보관리여야 한다고 주장한 논점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 Terry Cook은 정보는 지식과 문화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기록관리의 근본 목표는 지식과 문화의 차원이어야 한다는 논점을 펴면서 일대 논쟁을 전개했었다.

로서의 기록이라는 개념이 또한 강하게 대두되었다. 바로 포스트모던 시대와 전자기록 시대의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언어로의 전환(linguistic turn)’ 혹은 ‘문화로의 전환(cultural turn)’이라는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했다.<sup>36)</sup> 왜냐하면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라 기록관리의 대상은 끊임없이 상호 구성 되어가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담론으로, 즉 시대의 가치로 포착되었고 전자기록 시대는 이러한 기록관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문화적으로 민감한 기록보존소’, 커뮤니티 아카이브즈’, ‘토탈 아카이브즈’ 등은 그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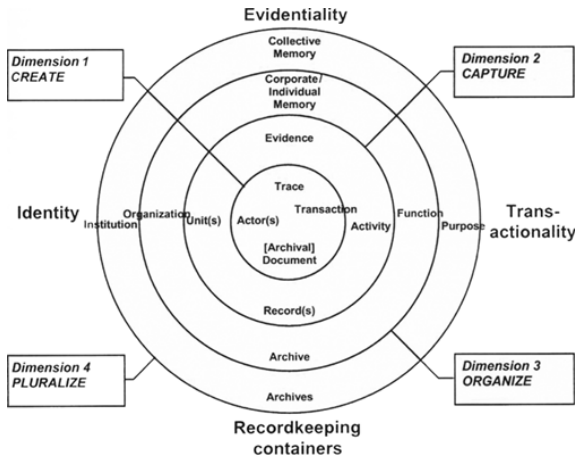
이러한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전환의 개념 속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 이론은 기록 연속체(Records Continuum) 이론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 이르게 되었다. 업워드(Frank Upward)와 그의 동료들이 실현하고자 한 것은 시스템을 통해 기록발생 이전부터 기록화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시스템을 통해 증거, 정보, 지식, 문화, 기억, 정체성, 공동체의 상호 구성이 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였다.<sup>37)</sup> 그 결과 기록이 과거의 흔적에서 증거로 그리고 개별 기억과 집단 기억으로 상호구성 되어 가는 과정을 다이어그램을 통해 그들은 보여준다. 동시에 이들은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 개별 기록관리의 행위자에서 기록관리 기관으로, 기록의 개별의 맥락에서 사회적 맥락으로, 단순 기록에서 맥락으로 상호 연계된 기록군(아카이브즈)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다이어그램은 증거, 기록, 행위자, 행위의 4개 축선과 생산, 획득, 조직화, 다원화라는 4개의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상호구성 과정을 시각화 해주고 있다. 업워드는 이 4개의 축선과 차원을 넘어서서 또는 이들 사이에 무수히 많은 축선과 차원이 존재함을 상정하고 있다.<sup>38)</sup> 즉, 이는 기록연속체 이론에서 순환·진보의 상호구성 과정을 통해 기록의 의미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끊임없이 상호구성 되고 있음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포스트모던 사상과 전자기

36) 포스트모더니즘과 구성주의 이론에서 ‘언어로의 전환’과 ‘문화로의 전환’은 핵심 개념들이다.

37) Frank Upward,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Part 1: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Archives and Manuscripts* 24-2 (1996).

38) 원종관,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8.

록 시대의 특징에 의거하여 가능했다. 결론적으로 보아, 업워드는 포스트모던 사상과 전자기록 시대의 특징에 의거하여 아래 표에서처럼 축선과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구조로서의 기록과 행위자로서 아키비스트 사이의 상호구성이 기록관리로 구조화되는 끊임없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Source: © Frank Upward, all rights reserved

이러한 기록연속체 이론을 만들면서 업워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듯이 기든스 (Anthony Giddens)의 구성주의 이론, 구체적으로 말해 그의 사회구성론, 특히 그의 구조화 이론 및 시간과 공간의 원거리화 이론을 도입했다. 이는 기록화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주의 이론의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역설해 준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다. 필자가 보기에 기록연속체 이론은 기록화 전략을 구성주의 이론과 연계시켜 도입함으로써 역동성과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기록화 전략의 발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

를 전개하기 위해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과 연계하여 증거, 정보, 지식, 기억, 정체성, 공동체의 상호구성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논할 것이다.

#### IV. 구성주의에 의거한 증거, 정보, 지식, 문화, 기억, 정체성, 공동체의 구성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 1. 기든스의 구성주의 이론에 따른 기록과 아키비스트 사이의 상호 구성 과정과 공동체 정체성 구성에 대한 논의

앞서 보았듯이 붐스의 기록화 계획 이론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인 아키비스트 또한 사회적 동물이라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만큼 인간이 공동체 삶을 영위한다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공동체란 인간들이 모여서 함께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기본 터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함께 속한다고 하는 의식이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함께 속하고, 무엇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답하다 보면, 그들을 공동으로 나타내주고 묶어주는 공동의 가치, 삶의 방식 또는 표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들을 공동으로 표시해 주는 정체성의 내용들이고 기호들이다. 정체성이란 그들은 누구인가를 나타내 주는 특징이며, 함께 속한다는 의식 그리고 특정한 가치 체계와 표식을 공유하는 상황을 말한다.<sup>39)</sup>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공동체 정체성이 작동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정체성은 한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충성을 바치는 근원이 바로 이 정체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sup>40)</sup> 따라서 정체성을 공유함이 없이 한 공동체의

39) 이러한 표식 중 중요한 것이 기록문화유산이다.

유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구성주의 이론은 공동체의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 구성과정과 원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록화 전략이 공동체의 정체성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아키비스트가 이 과정의 주요 행위자라고 한다면 이 구성주의 이론은 기록화 전략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정체성 구성에 관한 구성주의 이론은 대단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 이론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 (Anthony Giddens, 1938~)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의 저작 『사회 구성론』<sup>41)</sup>을 통해 사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했다. 그런데 우리 아키비스트들에게 기든스의 이러한 구성주의 이론이 의미가 특별히 큰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업워드와 그의 동료들이 바로 이 이론에 근거해서 레코드컨티뉴엄을 창안했기 때문이다. 기든스는 무엇보다도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구성되어 감을 보여준다. 그런데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은 시간과 공간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일치되는 차원에서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 구조화과정으로 구성되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그 성격을 변화시켜 간다. 기든스는 세계화 과정을 이러한 맥락으로 설명한다.

이 구조화 이론을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적용해본다면 아카이브즈와 아카이브즈에 관련된 모든 것을 구조라 볼 수 있고 아키비스트를 행위자라

40) Hans Boom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1987), p. 76; Terry Cook,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2012). 필자가 의미하는 상호구성 과정에 의한 정체성은 열린 정체성을 말한다. 닫힌 정체성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41) Anthony Giddens,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4, (황명주, 정희태, 권진현 역, 『사회구성론』, 자작아카데미 1998).

볼 수 있으며 아카이빙 과정은 하나의 구조화라고 할 수 있겠다. 아키비스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태어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면서 아카이빙을 하고 그러한 아카이빙 과정은 아키비스트를 또 새롭게 구성하게 만든다. 이러한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또한 아키비스트의 정체성이 구성되고 다시 아키비스트는 아카이빙을 통해 사회의 정체성을 구성해간다. 이는 달리 표현하여 아키비스트가 갖는 이론과 아카이빙이라는 실무의 끊임없는 변증법적 구성 과정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구성은 기록관리와 아키비스트의 상호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기록화 전략의 실현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듯이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구성은 복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상호구성 과정들은 상호 소통되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 또한 상호성이 이루어진다. 이는 공동체의 열린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 2. 증거, 정보, 지식, 문화, 기억, 정체성, 공동체의 상호구성

앞절에서 설명한 공동체의 정체성 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행위의 증거로서 뒷받침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원초적 상태의 정보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인식체계를 거치면서 지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이 지식은 인간의 인식체계를 통해 또한 정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호구성 관계에 있는 정보와 지식은 인간의 인식체계의 끊임없는 구성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인식체계를 문화라고 정의할 때 정보와 지식은 문화의 작용을 통해 상호 연계되며 상호구성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구성 관계의 정보와 지식은 문화의 산물이며 또한 문화는 정보와 지식을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어 간다. 정보와 지식 그리고 문화를 행위의 증거로서 기록이 매개한다고 할 때, 이러한 상호구성 관계에 있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문화는 기록관리 과정 속에서 사회적 동물인 아키비스트에 의해서 그 상호구성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논리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이 많은 부분 정보와 지식 그리고 문화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이들을 매개하는 행위의 증거로서 기록을 관리하는 아키비스트에 의해서 많은 부분 정체성이 구성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구성주의 이론이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이론적 정당성과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논리적 단서와 맥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논의를 우리는 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이후 초점이 맞추어지는 기억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기록화 전략의 의미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보다 본질적으로 많은 부분 구성원들이 기억을 공유하면서 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억을 공유하면서 공동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은 아키비스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기억과 정체성은 많은 부분 행위의 증거로서 기록을 통해 매개되기 때문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억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 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프로이트(Sigmund Freud)<sup>42</sup>와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이론<sup>43</sup>을 원용하여 간단히 살펴볼 수 있겠다. ‘기억’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현재가 언제부터 과거가 되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것은 항상 현재로 머물고자 한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것은 현재에서 밀려난다. 그것은 무의식의 세계로 잠적해 들어가고 점차 그 과정을 넘어서서 과거로 자리 잡는다. 그 과거 중에 기억으로 다가오는 것은 망각의 과정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의 과거는 현재의 나로부터 타자화되어 (othering) 성찰의 대상이 된다. 나의 현재의 의식이 작동한다. 즉, 이는 기억이 타자화된 과거로서 나의 성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의식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말한다. 이러한 기억은 또한 현재 나의 의식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개인의 차원

42) Sigmund Freud, "Erinnern, Wiederholen und Durcharbeiten," *Gesammelte Werke*: Werke aus den Jahren 1913-1917 (Bd. 10), pp. 125-136.

43) Maurice Halbwachs, *Les cadres sociaux de la mémoire*, Paris 1925; *La topographie légendaire des évangiles es terre sainte. Étude de mémoire collective*, Paris 1941; *La mémoire collective*, Paris 1950; Lutz Niethammer, *Kollektive Identität. Heimliche Quellen einer unheimlichen Konjunktur*, Reinbeck 2000, pp. 314-366.



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회기억 또는 집단기억이라는 용어를 낳게 한다. 현재의 의식은 인식체계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기억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또한 기억은 현재의 의식을 구성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은 문화다.<sup>44)</sup> 이러한 맥락에서 기억은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sup>45)</sup> 이 기억은 정보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정보와 지식과 문화의 상호구성 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기억 스스로가 이 상호구성 행위에 편입되고 공동체의 정체성 구성과 연계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이러한 기억은 공동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아키비스트들이 기록관리를 통해서 기억을 구성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기록 관리에서 사회적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키비스트의 신성한 의무였다고 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패러다임 변화 이후에 많은 아키비스트들은 증거라고 하는 것이 절대 객관적이며 고정된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록은 어찌 보면 그것은 상징적일지 모르는 일이었다. 어떠한 특정 관점과 상황 속에서 그 기록들이 사회적 행위의 증거로 채택되었을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아키비스트는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기에 그가 사는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그 증거는 그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아키비스트의 구성일 것이다. 그 증거는 절대불변의 고정된 것이 아니다.<sup>46)</sup>

여기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필요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겠다.<sup>47)</sup> 유사한 맥락에서 현재 구성주의 이론이 많은 정치, 사회, 경제,

44) Aleida Assmann (변학수, 백설자, 채연수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p. 534.

45)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humanist 2005.

46) Terry Cook,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2012).

문화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크게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데, 기록관리/기록학에서도 구성주의 이론이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록관리란 아키비스트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행위이며 증거와 기억의 상호구성은 기록관리 양태와 과정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증거와 기억의 구성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커뮤니티도 정체성에 그 기반을 갖게 되며 정체성의 구성 행위는 커뮤니티에 대한 구성행위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기록화 전략의 실현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정체성 구성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에는 상호 깊은 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또한 기록화 전략의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구성주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록화 전략의 수행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위해 정당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하겠다. 앞장에서 설명한 기록연속체 이론은 바로 이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필자는 본다.

## V.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방법론 확충을 위한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 이울곡의 이기일원론 성리학

### 1. 부르디외의 문화 아비투스 이론

아키비스트가 사회적 동물로서 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투영하면서 기록관리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일까? 이를 설명하는데 필자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 (Pierre Bourdieu, 1930-2002)의 문화 아비투스 이론

---

47) Hans Boom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1987), pp. 73-74.

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부르디외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사회가 추구하는 또는 그 사회가 규정하는 가치관을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그 가치관은 그 사회의 정체성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사회의 문화라고 표현될 수 있다. 인간은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정체성, 즉 문화를 획득하게 된다. 부르디외는 한 인간이 특정 사회의 삶을 통해 획득한 가치체계, 정체성을 문화 아비투스 (cultural habitus)라고 불렀다.<sup>48)</sup> 문화 아비투스란 사회생활에서 획득된 문화적 습관을 의미하겠는데 이는 넓은 의미로 생활방식의 코드를 말한다고 하겠다. 한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특정한 가치체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부르디외의 개념에 따르면 그 사회의 특정한 문화 아비투스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이 문화 아비투스를 사회생활을 통해, 특히 교육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획득 한다고 본다. 즉, 그가 의미하는 교육은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통해 스스로 습득하는 가치관이다. 그에 따르면 일상생활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이다. 그는 동시에 또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혹은 특정한 직업적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아비투스를 투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스가 채용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개념이 아비투스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은 기어츠(Clifford Geertz)가 말한 "인간은 자신이 짠 의미의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동물"<sup>49)</sup>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도 유용하다. 이러한 아비투스는 그 사회의 그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이와 깊은 연관관계에 놓여 있다.

물론 부르디외는 그의 주 저작인 『구별 짓기』<sup>50)</sup>에서 이러한 문화 아비투스

48) P. Bourdieu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下, 새물결 2006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Paris 1979); P. Bourdieu (최종철 옮김),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동문선 1995 (Algérie 60: structures économiques et structures temporelles, Editions de Minuit, 1977).

49) C. Geertz, Dichte Beschreibung. Beiträge zum Verstehen kultureller Systeme. Frankfurt/M., p. 9, 김기봉,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김기봉의 지음,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2002, p. 56 에서 재인용.

50) Pierre Bourdieu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下, 도서출판 새물결 2006.

를 계급과 관련해서 논의했다. 특정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삶의 과정을 통해 그 계급의 문화 아비투스를 획득한다. 예를 들어 입맛과 복식의 취향이 그러한 삶의 환경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 그는 이러한 문화 아비투스 이론에 기반해서 특정한 계급의 정체성을 이야기 했고 이 정체성이 어떻게 유지·확산되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 문화 아비투스를 그 계급사회가 유지·발전해 가는 동력으로도 설명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문화 아비투스 개념을 계급 정체성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정체성에 기초한 공동체들의 구성 및 유지·발전의 동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공동체 정체성의 구성과 발전은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 이 문화 아비투스를 획득하고 공유하고 세대를 이어 전수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부르디외의 이론을 원용하여 본다면 아키비스트가 사회적 동물로서 아카이빙 과정에서 자신의 특정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투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문화 아비투스를 작동시킨다는 점을 말한다. 아키비스트가 수집전략을 수립할 때, 평가를 수행할 때 그 어느 아카이빙 과정에서도 그의 이 문화 아비투스가 작용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케텔라르의 아키발라이제이션(archivalization)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키비스트의 아카이빙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증거, 정보, 지식, 기억의 구성과 유통은 그의 문화 아비투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앞에서 설명한 인간의 인식체계를 이 문화 아비투스로 대체하여 이해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이 문화 아비투스를 통해 인지된 원초적 정보는 지식으로 정립될 수 있다. 그런데 아키비스트의 아카이빙 과정은 그의 삶의 한 과정으로서 그의 문화 아비투스의 계속적인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설명한 기든스의 구조화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아카이빙이라는 구조와 아키비스트라는 행위자 사이에 상호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아키비스트의 문화 아비투스 구성이라는 구조화 과정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뭉스가 말하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인 아키비스트를 아비투스에 의해서 행위하는 그리고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행위자로 이해할 수 있겠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증거, 정보, 지식, 기억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그 정체성에 기반해서 공동체가 구성되고 유지·발전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한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르디외의 문화 아비투스 이론과 기든스의 구성주의 이론과의 연계 속에서 효율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의 정체성을 연계하는 고리로서 부르디외의 문화 아비투스 이론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문화 아비투스를 공유하는 데서 공동체로서의 집단의 구성을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르디외의 문화 아비투스 이론은 아키비스트의 기록관리 활동과 그의 사회적 역할을 매개해 줄 수 있으며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문화 아비투스들 간의 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큐멘테이션은 문화 아비투스 구성에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문화 아비투스의 상호구성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 2. 커뮤니티의 정체성 구성과 사회 거버넌스를 위한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의 의미

그런데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처럼 아키비스트가 문화 아비투스를 매개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의 기록관리 활동은 대단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차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는 진정 기록관리의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차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자는 아키비스트와 아키비스트 간의 소통, 아키비스트와 기록 생산자 사이의 소통, 아키비스트와 기록 이용자 사이의 소통, 아키비스트의 중개를 통한 기록의 생산자와 기록의 이용자 사이의 소통 또는 기록의 이용자끼리의 소통의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sup>51)</sup> 이러한 소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키비스트 고유의 주관성과 그의 문화 아비투스가 만개하면서 그의 임의성과 자의성이 변증법적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관리 과정의 바

51) 노명환,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 역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10호 (2011년 09월).

로 이러한 체계적인 소통을 위해서 필자는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 1929~)의 공론장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앞장에서 위원회 제도에 의거하여 기록화 (documentation)를 실현하는 논의를 소개했었는데 필자는 그러한 위원회 제도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에 의거해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주지하다시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은 근대 유럽에서 부르주아들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에 대한 그의 실증적 연구로서 1961년에 완성된 박사학위 논문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에 기초한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공론장은 부르주아의 것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공론장이었다. 그의 공론장 이론은 그가 후에 연구하여 발표한 (1981) 의사소통 행위이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sup>52)</sup> 즉, 자유로운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공론장이 형성되고 그러한 공론장은 시민 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가능하며 역으로 그러한 공론장은 시민 사회를 추동시킨다. 하버마스는 이것을 사회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로 보았다. 그는 이에 기초한 세계시민사회 구성을 내다보았다. 따라서 그의 공론장과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사회 거버넌스에 기초한 시민사회, 특히 세계시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버마스는 ‘간주관성의 소통 (communication of intersubjectivity)’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 각자의 주관성을 그리고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수평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소통을 의미했다. 이러한 관점은 아키비스트의 공동체 정체성 구성에 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이론적 틀로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의 사회 내 ‘시스템과 생활세계’<sup>53)</sup> 관계에 대한

52) Jürgen Habermas,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Hermann Luchter hand Verlag 1962, 5. Auflage (1971):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 *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1: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I,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1.

53) 김창호, 『하버마스의 체계와 생활세계』, 김재현 외 저,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 주제와 쟁점들』(나남출판, 1996), pp. 177-200.

고려 속에서의 공론장과 의사소통 방식 논의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기록관리 구조 속에서의 소통과 아키비스트에 역할에 대해서 좋은 시사점을 또한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54)</sup>

필자는 이러한 하버마스의 이론에 근거해서 아키비스트들이 아키비스트와 아키비스트 간의 소통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키비스트와 기록 생산자 사이의 소통, 아키비스트와 기록 이용자 사이의 소통, 아키비스트의 중개를 통한 기록의 생산자와 기록의 이용자 사이의 소통 또는 기록의 이용자끼리의 소통 체계도 추구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평가 위원회 제도 구축의 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필자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공론장의 소통체계에 의한 기록관리에 있다고 본다. 필자는 콕스에게서도 이러한 측면을 확인한다. “아키비스트는 기관의 기록생산자에서부터 기록의 이용자에 이르는 스펙트럼의 양끝에서 각각의 사람들과 교호할 필요가 있다. 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 strategy) 전략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sup>55)</sup> 그 소통의 구조에서 아카이빙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기든스나 부르디외가 상정한 이론들에 기반하여 기록관리의 구조와 아키비스트라는 행위자 사이의 끊임없는 변증법이 전개되면서 문화 아비투스(문화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아키비스트는 커뮤니티 정체성 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차원의 ‘공론장’의 실현으로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하버마스가 역점을 두었던 문제의식도 바로 이 사회 거버넌스의 활성화였다. 이렇게 본다면 커뮤니티 정체성의 구성은 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커뮤니티의 정체성은 사회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

---

54) Kelvin White, “The Role of Knowledge Infrastructures in Promoting Inclusive Archives and Participatory Democracies”, 2011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센터 주최 국제학술회의 발제문.

55) Richard Cox, “The Documentation Strategy and Archival Appraisal Principles: A different Perspective”, *Archivaria* 38 (1994), p. 21. 오향녕 옮김, 『기록학의 평가론 (Articles on Archival Appraisal)』, 진리탐구 354에서 재인용.

리한 맥락에서 기록관리를 통한 사회 거버넌스의 신장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서유럽의 역사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 이후 자유로운 개인의 사회 및 정치활동을 위한 참여가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 영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국가 행정과 지방자치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시민단체를 통한 개인들의 참여와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과 시민사회와의 협치, 즉 사회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어 거버먼트를 대신해 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거버넌스는 지식·정보 사회의 심화와 함께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회소통의 기제들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정보 사회는 문화 사회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sup>56)</sup> 이는 단순한 지식·정보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문화로서 투영되는 사회의 실현이 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론장은 아비투스들 간의 소통이어야 한다. 그런데 아비투스들 간의 소통으로서 공론장에 기초한 사회 거버넌스는 국가의 단위를 넘어서서 세계 공동체를 향하고 있으며 빠르게 세계시민사회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기든스가 시공의 확장과 더불어 전개되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구성과 구조화의 세계적 차원을 세계화로 본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과 구성주의 이론의 연계는 기록화 전략을 성공시켜야 할 당위성과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뵘스가 제시한 기록화 계획의 지향 점으로서 시대의 가치를 우리는 이러한 원동력을 통해 파악하고 기록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록화 전략의 미래 방향을 위하여 위의 논의들에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56) Terry Cook,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documenting governance rather than govern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25, No. 1, 2004.



### 3. 구성주의에 입각한 기록화 전략을 위한 이율곡의 이기일원론 성리학의 의미

앞에서 보았듯이 기든스의 구성주의 이론은 구조와 행위자의 끊임없는 상호구성을 통해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어 가는, 즉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구성의 보다 본원적인 차원을 우리는 동양의 성리학에서 볼 수 있다. 성리학의 기본 개념은 세상이 (우주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서로 다른 요소들이 순환적으로 끊임없이 상호구성을 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전체에서 시작한다. 이 것이 세상 (우주) 질서의 본질이라고 성리학은 본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 (우주)의 서로 다른 요소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변증법적 변화의 끊임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 이 끊임없는 변화는 순환의 구조를 이루고 그리하여 영원한 우주 질서를 구성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구성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와 행위자’는 서로 구별되어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이면서 둘인 그러한 관계에 있다. 구조를 행위자 인식체계의 산물로서 파악하는 ‘표상’의 개념으로 환치하고자 하는 구성주의들의 견해는 이러한 측면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서양 사상에서의 변증법은 서로 다른 것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진보의 방향성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양의 성리학적 변증법과는 대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동양의 유학, 그 중에서도 주자학, 그 중에서도 성리학은 본체론으로서의 이기론(理氣論)과 인간론으로서의 심성론(心性論)과 수양론으로서의 성과 경(誠.敬)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크게 보자면 우주는 태극과 음양으로 되어 있으며 태극은 이요, 음양은 기다. 이는 본체와 정신이고 기는 현상과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태극을 이라 하고 음양을 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태극과 음양의 본질 및 양자의 관계, 즉 이와 기의 본질 및 양자의 관계 그리고 변증법적 상호구성의 작동원리에 관해서는 성리학 내에서도 여러 이론들이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커뮤니티 정체성의 구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조선시대 이율곡(李栗谷, 1536-

1584)의 이기일원론 성리학 사상<sup>57)</sup>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음과 양의 상호작용, 이와 기의 상호작용, 태극과 음양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속에서 생성되는 오행의 변증법적 상호구성 순환 과정을 그의 독자적인 사상 체계 속에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이율곡은 이와 기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관계라고 했다. 또한 둘이면서도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와 기는 끊임없이 서로 상호 영향을 준다.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변화하고 새롭게 구성된다. 이것을 이율곡은 이기지묘(理氣之妙)로 표현했다.<sup>58)</sup> 그에 따르면 이와 기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으며 기는 이와 더불어서만 그의 존재를 가질 수 있으며 본래의 기능을 수행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으로 표현했다.<sup>59)</sup> 그는 이 개념을 달리 기발이승(氣發理乘)으로 표현했다.<sup>60)</sup> 여기에서 그는 존재의 동력은 기에 있으며 그 동력 속에서 이가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기의 동력은 이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동일한 뜻을 갖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이 그의 이기일원론 성리학의 요체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앞에서 논의한 구성주의 이론들보다 보다 정교하게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각자의 본질, 그리고 상호구성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율곡의 성리학을 태풍의 눈과 그 주변의 소용돌이의 관계와 그리고 그 상호작용 속에서 오행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아래의 그림들처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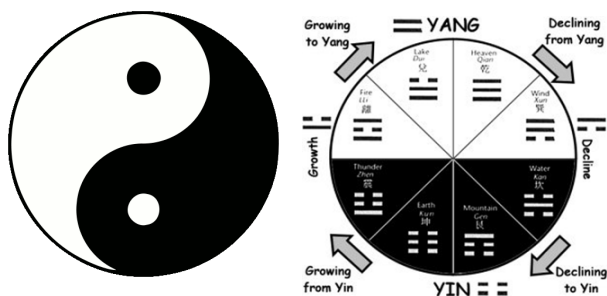
57) 황의동, 율곡의 이기론, 예문동양사상연구원·황의동 편저, 한국의 사상이 10인. 율곡 이이, 예문서원 (예문동양사상연구원총서 6) 2002. pp. 141-168; 이동준, 율곡 철학에 있어서 리의 생성성에 관한 논구, pp. 171-190; 김종문, 율곡의 리기 철학 체계에 대한 연구, pp. 191-234; 황의동, 율곡 인성론의 리기지묘적 구조, pp. 235-277; 이상익, 율곡 이기론의 삼중 구조, pp. 278-310; 권오영, 조선성리학의 의미와 양상, 일지사 2011.

58) 황의동, 율곡의 이기론, 예문동양사상연구원·황의동 편저, 한국의 사상이 10인. 율곡 이이, 예문서원 (예문동양사상연구원총서 6) 2002. pp. 141-168, pp. 153-157.

59) 황의동, 율곡의 이기론, 예문동양사상연구원·황의동 편저, 한국의 사상이 10인. 율곡 이이, 예문서원 (예문동양사상연구원총서 6) 2002. pp. 141-168, pp. 161-166.

60) 황의동, 율곡의 이기론, 예문동양사상연구원·황의동 편저, 한국의 사상이 10인. 율곡 이이, 예문서원 (예문동양사상연구원총서 6) 2002. pp. 141-168, pp. 161-166.

수 있다. 태풍의 눈은 태극과 이를 상징하고 원초적 고요함과 초월성으로 대비되며 소용돌이는 운동성으로서의 음양이고 기이며 움직임과 현실성으로 상징된다.



이는 일면 앞에서 설명한 기든스의 상호구성의 구조화 이론과 그 사고의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와 행위자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본원적으로 다르다. 기를 형성하고 있는 음과 양은 또한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총체인데 음인가 하면 양이고 양인가 하면 음이고 끊임없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고 상호구성을 한다 (相反相成).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 설명한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처럼 구조화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의 결과를 이루면서 진행된다. 즉, 태극과 이 그리고 음양과 기는 분열과 순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과정 속에 있다. 이것이 우주의 작동 본질인데 인간은 이러한 우주의 본질 중의 한 요소이다. 인간은 이러한 우주의 본질을 깨달아서 그 본질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에 반해 기든스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구조와 행위자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면서 구조화가 이루어지는 순환의 변증법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의 확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보해 간다. 이러한 순환·진보의 개념은 앞에서 설명한 비코의 나선형 진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나선형의 순환이 변증법 속에서 인간은 (행위자는) 상호구성의 행위를 지속해 간다. 그러나 성리학에서의

음과 양의 그리고 이와 기의 끊임없는 변증법은 변함없는 우주의 질서로서 끊임 없이 순환하면서 그 질서를 지킨다. 이러한 우주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순응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주에 또는 자연에 인간이 복속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우주의 원리를 주체적으로 깨달아서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 깨달은 원리에 순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우주의 진서를 지키기 위해 인간에게 수양을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하는 성리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윤리적 지향 점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유교적 경구와 맞닿아 있다. 우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은 맡은 바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왕은 왕의 역할 그리고 백성은 백성의 본분을 지키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해낼 수 있도록 각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수양하고 정진해야 한다. 여기에서 왕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는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를 지키는 속에서 유교공동체의 정체성이 구성·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성리학적 유교공동체 정체성 구성의 과정을 위해 주요한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 조선 시대의 그 치밀하고 정교한 기록관리 제도라고 보아진다. 필자는 기록관리 제도가 유교공동체의 각자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수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통제하고 후대에 거울로서 작용하며 계몽의 역할을 하도록 채택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왕에게 기록관리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었다. 조선시대의 기록관리는 성리학적 유교공동체를 이루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커뮤니티의 정체성 구성 원리와 관련하여 성리학 이론과 기록관리의 상호 관계를 논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 시대의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등의 기록 생산, 그리고 의궤와 왕조실록 편찬 등은 일종의 기록화 전략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기록화해야 할 시대적 가치는 성리학적 세계관이었다. '이 시대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즉 '성리학적 우주 질서를 지키려는 각 행위자들의 노력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가 또한 기록화 되어야 했다. 성리학적 우주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은 '예(禮, propriety)'로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상징적인 예가 중요한 기록화의 대상이었다. 이 기록화의 결과가 오늘날의 사진 촬영과 같은 그림 기록의

생산이었고, 이를 편찬한 것이 의례였다. 이러한 기록화는 성리학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구성원 사이의 매체로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매체로 작용하여야 했다. 이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목표는 성리학적 세계관의 세상을 완성하여 유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이기론(理氣論)과 음양오행설의 상호구성 과정 속에서 순환하는 우주 질서에 의거하여 실현되어야 했다. 이에 대한 필자 나름의 상세한 설명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조선시대의 기록관리가 세계(우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서 유교공동체 정체성의 상호구성 과정을(원리들) 뒷받침해 주는 측면은 없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은 필자의 지대한 연구 관심사다. 성리학적 유교공동체의 정체성 구성과 앞에서 논한 오늘날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사회 정체성 구성 방식과 목표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온고이지신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율곡의 이기일원론 성리학으로부터 구성주의에 입각한 기록관리 및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위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기록관리/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의 의미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구성주의 시각에서 논의했다. 아키비스트의 주관성에 대한 인정과 각 주관성들의 상호 소통의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아키비스트에게 정보, 지식, 문화, 기억과 공동체 정체성의 구성은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 배경의 정점에서 기록화 전략이 등장하게 되었다. 기록화 전략은 기록관리의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 시도되게 되었으며 구성주의 이론과 함께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근간이 되었다. 아키비스트들이 기록화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록과 기록관리와의 상호구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의 노력을 기울일 때 현재의 기록화 전략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풍성한 미래비전을 열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역사학의 방향과 거버넌스 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기록화 전략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 즉, 기록화 전략은 역사연구의 새 지평을 열면서 역사학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기록화 전략은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포스트모던 사상과 전자기록 시대의 대두라는 정신적, 기술적 측면의 사회 대변혁과 함께 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록관리가 사회 거버넌스를 실현하는데 매우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성주의 이론의 도입이 절실함을 필자는 주장하였다. 구성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성리학의 도입은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 기록관리는 미래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관한 풍성한 연구결과들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의 의미를 읽고 그 정점으로서 기록화 전략의 이론을 보완할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구성주의 이론의 계보는 서양의 사상사에서 뿐만 아니라 성리학 등의 동양의 사상사에서 보다 심오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그리고 기록관리 체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구조와 행위자의 끊임없는 상호구성을 통한 변증법적 통일 개념은 베버(Max Weber)가 말한 개별들에 대한 인식과 비교 작업에서 ‘무한으로의 진보(unendlicher Fortschritt)’를 통해 보편성을 정립해 가는 이상형(Ideal Typus) 모델을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키비스트들이 기록과 함께 상호구성을 해나가는 진지한 노력이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강력히 요청된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면 아키비스트들은 일대 변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각별한 학문적 노력을 쌓아가야 한다. 기록학의 커리큘럼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차원에서 위에서 말한 맥락의 패러다임 변화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권오영, 『조선성리학의 의미와 양상』, 일지사 2011
- 김기봉외 지음,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2002
- 김명훈, 『전자기록 평가론』, 도서출판 새 진리탐구 2009
- 김창호, 「하버마스의 체계와 생활세계」, 김재현 외 지,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 주제와 쟁점들』(나남출판, 1996), pp. 177-200
- 노명환,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제 14호 (2006. 10)
- 노명환,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 역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10호 (2011년 09월)
- 설문원, 「디지털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1
- 예문동양사상연구원·황의동 편저, 『한국의 사상가 10인. 율곡 이이』, 예문서원 (예문동양사상연구원총서 6) 2002
- 오디 클로우츠/ 시실리아 린치 (손혁상/이주연 옮김),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관계 연구 전략』,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p. 107. (Audie Klotz/ Cecelie Lynch,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 오명진, 「동시대 역사적 사건의 기록화 전략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 오향녕 옮김, 『기록학의 평가론 (Articles on Archival Appraisal)』, 진리탐구 2005
- 이승역,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2 (2006)

- 원종관,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8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humanist 2005
- Assmann, Aleida (변학수, 백설자, 채연수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 Bastian, Jeannette and Alexander, Ben (ed.),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London 2009
- Bourdieu, Pierre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下, 도서출판 새물결 2006
- Bourdieu, P. (최종철 옮김),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동문선 1995 (Algérie 60: structures économiques et structures temporelles, Editions de Minuit, 1977)
- Booms, Han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1987)
- Brenneke, Adolf, *Archivkunde: Ein Beitrag zur Theorie und Geschichte des Europäischen Archivwesens*, bearb. v. Wolfgang Leesch (Leipzig: 1953)
- Cox, Richard J., "The Documentation Strategy and Archival appraisal Principles: A different Perspective", *Archivaria* 38 (1994)
- Cook, Terry,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1 (2001)
- Cook, Terry, "Fashionable Nonsense or Professional Rebirth: Postmodernism and the Practice of Archives", *Archivaria* 51



(Spring 2001)

- Cook, Terry / Samuels, Helen W. (ed.), *Controlling the Past: Documenting Society and Institutions : Essays in Honor of Helen Willa Samuel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11
- Cook, Terry,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997)
- Cook, Terry,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documenting governance rather than govern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25, No. 1, 2004
- Cook, Terry,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12 (2012)
- Cook, Terry, "Documentation Strategy", *Archivaria* 34 (Summer 1992)
- Droysen, Johann Gustav, *Historik. Vorlesungen über Enzyklopädie und Methodologie der Geschichte*, ed. Rudolf Hübner, 5th ed. (München 1967)
- Fiske, John, *Reading the Popular*, (Boston: Unwin Hyman 1989)
- Freud, Sigmund, "Erinnern, Wiederholen und Durcharbeiten," *Gesammelte Werke: Werke aus den Jahren 1913-1917* (Bd. 10)
- Latin, David D., *Identity in Form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 Geertz, C., *Dichte Beschreibung. Beiträge zum Verstehen kultureller Systeme*. Frankfurt/M.
- Giddens, Anthony,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4, (황명주, 정

- 희태, 권진현 역, 『사회구성론』, 자작아카데미 1998
- Gilliland, Anne J., "Reflections on the Value of Metadata Archaeology for Recordkeeping in a Global, Digital World",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32 No. 1 (April 2011)
- Habermas, Jürgen, *Struktuwandel der Öffentlichkeit*, Hermann Luchter hand Verlag 1962, 5. Auflage (1971)
- Habermas, Jü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 *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1;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I,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1
- Hackman, v and Warnow-Blewett, Joan , "The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A Model and a Case Study", *American Archivist* Vol. 50 (Winter 1987)
- Halbwachs, Maurice, *Les cadre sociaux de la mémoire*, Paris 1925
- Jenkinson, Hilary, *A Manual of Archival Administration*, (London: P. Land, Humphries, 1937), (1922년에 첫 출간)
- Ketelaar, Eric, "Archivaliz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27 (1999)
- Ketelaar, Eric, "Tacit Narratives: The Meanings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1: 2001
- McKemmish, Sue, Gilliland-Swetland, Anne and Ketelaar, Eric, "Communities of Memory': Plualis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 *Archives and Manuscripts* 33. 1 (May 2005)

- Muller, Samuel / Feith, J. A. / Fruin, R., *Manual for the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Archives* (New York: W. Wilson, 1968)
- Mommsen, Wolfgang A., "Ernst Posner, Mittler zwischen deutschem und amerikanischem Archivwesen", *Der Archivar*, 20. Jahrgang (Juli 1967) Heft 3
- Niethammer, Lutz, *Kollektive Identität. Heimliche Quellen einer unheimlichen Konjunktur*, Reinbeck 2000
- Posner, Ernst, "Max Lehman and the Genesis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n: *Indian Archives* (Jan.-June 1950)
- Samuels, Helen Willia, "Who contols the Past", *American Archivist* 49 (Spring 1986)
- Schellenberg, Theodore R., *Management of Arch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 Schlereth, Thomas J. (ed.), *Material Culture: A Research Guide*, (Lawrence, 1985)
- Spiering, Menno, "National Identity and European Unity", in Michael Wintle (edt.), *Culture and Identity in Europe. Perceptions of divergence and unity in past and present*, Oxford 1996
- Upward, Frank,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Part 1: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Archives and Manuscripts* 24-2 (1996)
- Weiser, Johanna, *Geschichhte der Preußischen Archivverwaltung und ihrer Leiter. Von den Anfängen unter Staatskanzler von Hardenberg bis zur Auflösung im Jahre 1945*, Köln/Weimar/Wien 2000

<국문초록>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의 의미와 의의:  
거버넌스 사회의 실현과 역사연구의 새 지평을 위하여**

노명환

본고에서 필자는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가 무엇이며, 이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기록학의 이론들이 어떻게 재정립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는 기록화 전략 (documentation strategy)과 이것을 수행하는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주제의 논의로 침체화되었다. 필자는 기록화 전략의 미래 방향으로 구성주의 이론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또한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 그리고 이울곡의 이기일원론 성리학 이론이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아키비스트, 기록화 전략, 구성주의 이론, 성리학

<Abstract>

## The Paradigm Shift of the Archival Science and the Documentation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ructivism: For the Realization of the Governance Society and the New Dimension of the Historical Research

Noh, Meung-hoan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d to figurate the paradigm shift of the Archival Science and Archival Management. The paradigm shift was focused on the theory of the documentation strategy and the active role of the archivist. The author maintains to introduce the theory of the Constructivism to the Archival Science for the purpose of the future orientation of the documentation strategy. He observes the values of the Habitus theory, Public Sphere theory, and the Sunglihak also for the documentation strategy.

Key Words: paradigm shift of the Archival Science, archivist, Constructivism, documentation strategy, Sunglihak

투고일 : 2013년 2. 12 / 심사일 : 2013년 2. 13 ~ 2. 20 / 게재확정일 : 2013년 2. 21

---

**필자소개** : 노명환 -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이며 서양현대사, 유럽통합사, 냉전시대의 독일사와 한국사, 서양 기록관리의 역사, 서로 다른 문화 이해와 국제지역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연락처: hoannoh@hanmail.net)